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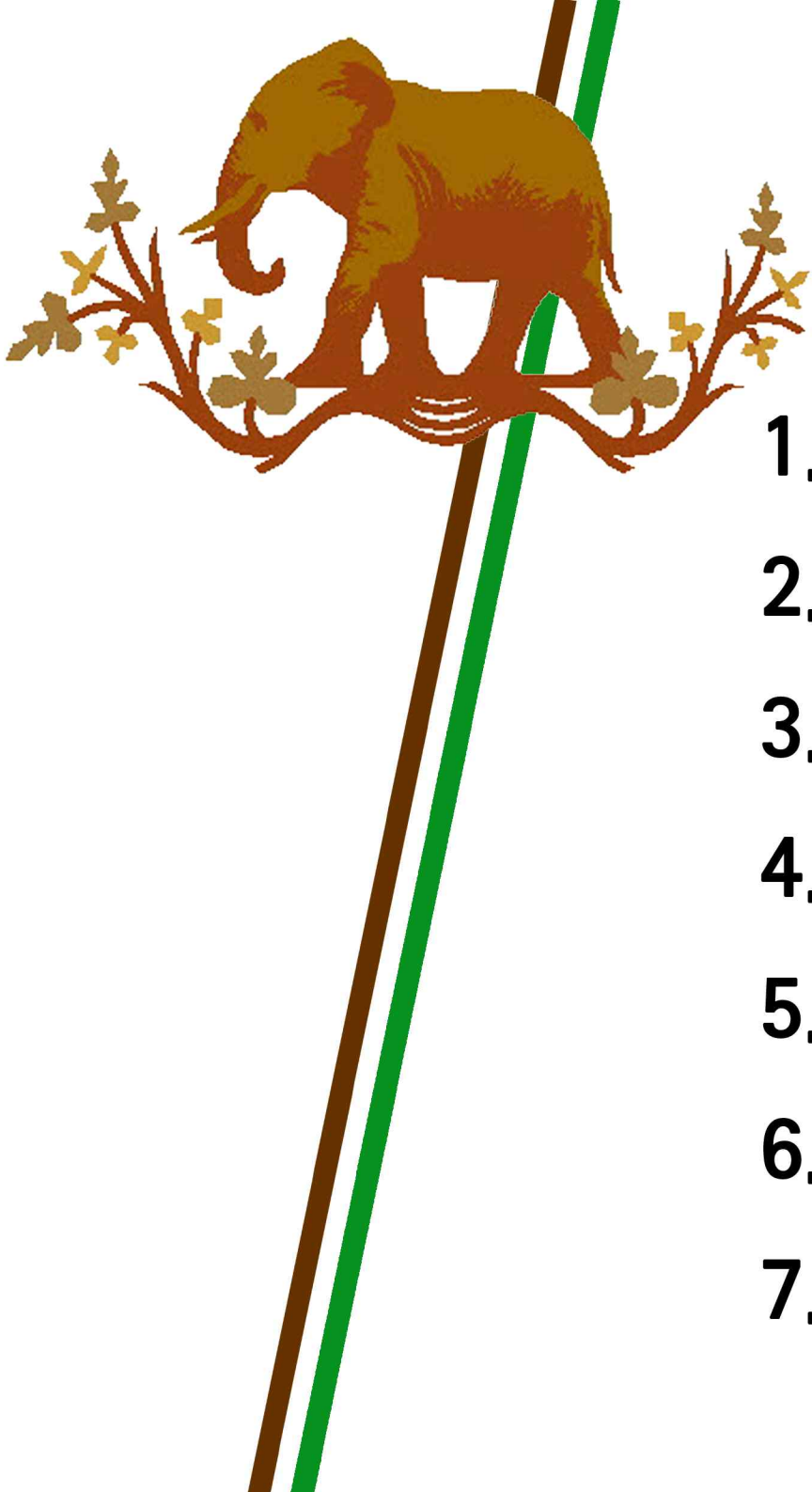
INCREDIBLE MUMBA!

RaonAtti 8th India

2012. 11
VOL.3

the general editor by Arpita
editor by Naina
illustration by Sameer
photograph by Rahul
advice by Anushka





Contents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2. 일정표
3. Library Project
4. 11월의 인도팀
5. 11월의 행사
6. 에세이
7. 예고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 사 할아버지: 보이즈홈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VTC의 최고 책임자. 특유의 툭툭 쏘는 비판으로 가끔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사이사이 들어있는 깨알 같은 조언들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우리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가장 회의적이신 사 할아버지!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물론 우리 기수에서 느끼실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음 기수가...





● 미소: 보이즈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house parents의 1남 1녀 중 장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만장일치로 한국 이름을 미소로 지어주었다. 이번에 보이즈홈 캠프를 함께 가서 같은 방을 쓰면서 더 친해졌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특히 강남스타일 춤을 굉장히 좋아한다. 남자들만 사는 보이즈홈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들이라 그런지 어느새 언니바라기가 되어버렸다. 가는 곳 마다 따라와서 언니들을 당황시켰다는 후문.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 수지: 프린스와 복서의 애정을 한 몸에 받는 Andheri Y의 안방마님. 주로, 고장 나서 밖에 내놓은 러닝머신 아래에서 낮 시간을 보낸다. 낮에는 한없이 무기력하지만, 밤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직립보행을 하며 누구보다 생기발랄한 환영을 해준다. 

● 복서: Andheri Y의 Fighter. 헤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동네를 평정한 싸움꾼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는 한없이 온순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짖을 때를 보면 우리도 간담이 서늘해지곤 한다. 밤에 수지나 프린스에게 싸움을 걸어 짖어대는 탓에(특히 여자 방 창문 앞에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주범. 



● 프린스: 복서에게 물려 뒷다리 한 쪽이 부러진 탓에 절름발이가 된 프린스. 우리가 도서관 작업을 할 때면 마치 우리 팀원 중 한 사람인 마냥 따라와 자연스레 착석한다. 작업하는 우리 의자 밑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가 주는 쿠키 한 조각 받아먹는 낙으로 사는 귀염둥이. 

2. 일정표










11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Library project		
4	5	6	7	8	9	10
					어린이날행사	디올리행사
11	12	13	14	15	16	17
크리스마스	보이즈홈방학					Member camp
18	19	20	21	22	23	24
				중간평가		
25	26	27	28	29	30	
	Boys' home camp				인도팀첫회가 Go!Go!	



2. 일정표

인도팀의 바쁜 일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8			모닝튜션 			
9						
10		유도 및 축구 코칭 				 소리
11						
12		오후반 점심 				
13		오후반 통학 				
14		오후반 점심(우리도!) 				점심 😊
15						
16						
17		도서관 작업 				
18						
19						
20		회의 				
				회의		주간 회의



3. Library Project

유 난히 행사도 많고, 집을 비운 날도 많았던 11월. 아이들 방학이 시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잠시 속도가 붙기도 했지만, 아직 작업량이 한참 남아있다. 중간평가 이후 팀 안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느라 ‘어떤’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12월에 우리는 주 이용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즈홈 아이들, VTC(Vocational Training Center, 이하 VTC)여성들, VTC 아이들을 대상으로 3번의 미팅을 기획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고,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기초적인 작업은 80% 이상 완료된 상태이며, 미팅 결과에 따라 도서관의 이름을 짓고, 컨셉을 분명히 한 뒤, 가구 배치와 도서관 이용 규칙,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12월 중 도서관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상 중에 있다. 



4. 11월의 인도팀

멤버십 캠프

우리가 머물고 있는 Andheri YMCA에서 버스로 약 다섯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YMCA Campsite에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되었다. YMCA Membership 아이들을 위한 캠프로, YMCA Membership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의 부의 상징인 이곳인지라 캠프의 분위기는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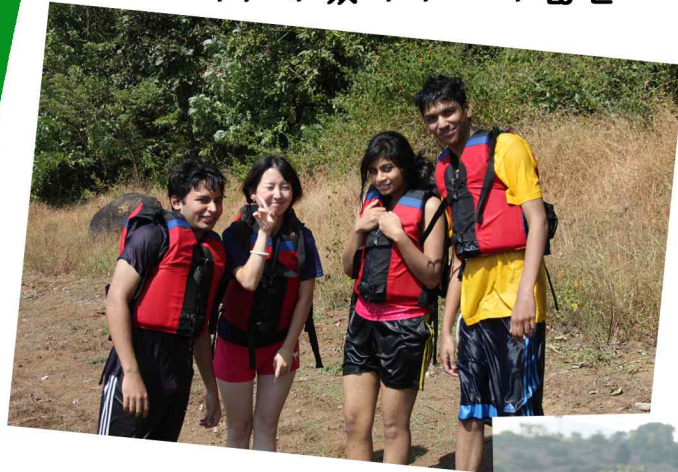
캠프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변의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호수에서 수영하기, 카약 타기, 트래킹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캠프 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세션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사이사이 비는 시간들은 깨알 같은 게임들도 채워져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오전 운동 이후와 캠프파이어 때 조별로 돌아가며 하는 스킷(단막극)은 빈곤, 여성, 아동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주제로 던져졌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교육의 한 면 볼 수 있었던 동시에, 아이들의 창의력도 엿볼 수 있었다.



4. 11월의 인도팀

멤버십 캠프

캠 프 일정 동안 우리들은 캠 프 경험이 다수 있는 Group Counselor(캠 프 자원봉사자)와 Camper(캠 프 참여자)의 중간으로 위치설정을 했다. YMCA 측에서는 우리가 캠 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를 바라는 차원에서의 배려였고, 이곳에서의 캠 프 경험이 없는 우리들도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전교육의 부재로 인해-자원봉사자들에게는 라온아띠에 대한, 라온아띠에게는 캠 프에 대한- 활동 내내 역할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고민이 있었고, 이것은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즐거움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들었던 캠 프였고, 그렇기에 앞으로 라온아띠의 참여 여부에 있어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캠 프였다.



4. 11월의 인도팀

중간평가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이 흘렀고, 한국 사무국에서 '중간평가'라는 이름으로 인도팀을 방문했다. 평가단은 22일 저녁 태국팀 방문을 마치고 뭄바이에 도착해, 24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평가 일정은 크게 중간평가 프레젠테이션과 활동지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성수, 선영, 우제는 22일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이윤희 국장님, 최현욱 부장님, 정동민 간사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인도식 손님맞이 의식을 배워가야 한다는 알렌의 강력한 주장으로, 우리는 색소 가루를 촛불에 살짝 녹인 고체 기름과 섞어 이마에 찍는 법, 쌀 뿌리는 법 등을 배웠다. 한국 평가단이 보이면 목소리가 큰 성수는 고함을 지르고, 키가 큰 라파엘은 그 소리에 환영 팻말을 들고, 환영 의식을 배운 선영이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기관장 알렌은 환영 꽃목걸이를 준비하고, 사진에 혼을 신는 우제는 사진을 찍기로 약속을 하고는 평가단을 기다렸다. 환영식은 물론 성공적이었다.



4. 11월의 인도팀

중간 평가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머물렀던 International House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다. 뭄바이 와이 쪽에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해 살짝 실망하기도 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동안의 우리들의 활동과 생활들을 나누었다. 모두들 열심히 경청해 주었고, 개인 리플렉션이 끝난 후에는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우리 팀이 첫 한달간 활동했던 Kamathipura Balwadi를 방문했다. 아쉽게도 휴일인 관계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렸던 벽화 위에 나도 예쁜 그림을 그려보겠다며 쪽쪽 그은 아이들의 연필 자국에 모두들 마음이 짠해왔다. 진손을 비롯해 Balwadi 식구들은 우리가 가고 난 후 이곳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었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라온아띠 8기 인도팀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저녁에는 한국 사무국과 뭄바이 사무국 간의 미팅이 있었고, 그 후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즐거운 식사를 함께 했다. 알렌의 배려로 우리 팀은 평가단이 머무는 숙소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며, 늦은 새벽까지 그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4. 11월의 인도팀

중간 평가

평가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주 활동지인 보이즈홈으로 이동했다. 평가단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둘러보고, 보이즈홈 식구들과 인사도 나누고 기관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며, 현재 우리 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의 조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도서관 프로젝트를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었다. 보이즈홈을 둘러본 후에는 이윤희 국장님의 추천으로 숙소 근처의 아쉬람을 방문했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 간디가 아쉬람을 통해 커뮤니티의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자 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외에 평가단은 앞으로 우리 팀이 활동하고자 하는 Juhu Beach의 Street Children Shelter에도 방문해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인이기에 굉장히 즐거웠고, 밀렸던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팀원 개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짧은 기간에 바쁜 일정들을 모두 소화해주신 간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평가단의 힘을 받아 남은 2개월도 힘차게 달려야겠다.



4. 11월의 인도팀

보이즈홈 캠프

중간평가단이 돌아간 후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바로 보이즈홈 캠프를 위해 YMCA Campsite로 향했다. Mumbai와 Pune 사이에 위치한 Village Nilshi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미 떠나기 전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Heaven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들뜬 모습을 보니 불과 1주 전에 멤버캠프를 위해 갔던 곳이지만, 우리도 또 다른 설렘을 안고 갈 수 있었다.

워낙 질서정연하고, 스스로 일을 척척 해내는 아이들이라, 우리가 엄하게 지도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기대 이상의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한 예로, 주변의 자연 지물을 이용해 Craft를 만드는 시간에 아이들이 나무를 해다가 진짜 오두막을 만들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아피들도 지난 캠프와는 달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즐기고,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지난 캠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3살 이상의 아이들과 미만의 아이들을 나누어 어린 아이들이 바바, 아이와 함께 강연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동안 큰 아이들은 수영, 카약, 락클라이밍, 레더링, 활쏘기 등의 Activity를 하였고, 마지막 날엔 4시간여의 트래킹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같은 활동을 더 짧은 일정 속에 하는 데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줘 보이즈홈의 대단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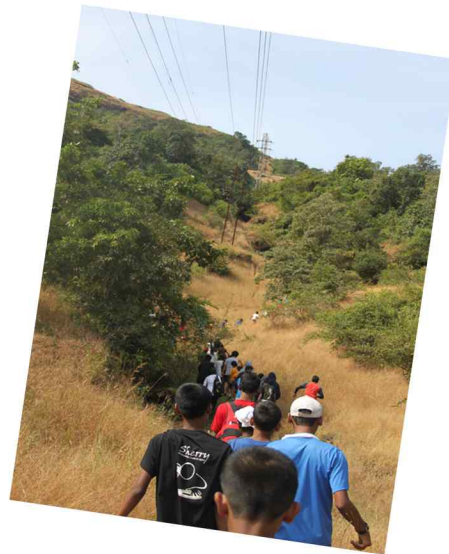


4. 11월의 인도팀

보이스홈캠프

그렇게 짧지만 즐거운 3박 4일의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다. 우리가 탄 버스가 브레이크의 문제로 서지 못 해 갓길로 질주했고, 앞에 서있던 3대의 차를 박고 차도 바깥쪽 암벽을 살짝 박은 뒤 멈춰 섰다. 전면과 좌측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지만, 다행히도 아띠들과 아이들 모두 작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은 정도에 그쳐 큰 부상자가 없었다. 사고에는 참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우리 바로 앞에는 가스 운송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비켜 서있었고, 좌측에는 암벽, 우측에는 절벽이 있었다.) 그 모든 불운들이 우리를 비껴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금은 인도에서 ‘인도신과 함께’를 찍을 뻔 했다면 웃으며 말할 정도니, 우리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에피소드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겁먹지 마시라, 인도에서도 이러한 교통사고는 흔치 않다. 우리가 보기에겐 엉망이지만, 이곳의 모든 차들은 인도만의 질서로 움직이고 있다. 



5. 11월의 행사

어린이날 행사

인도에서는 주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네루의 생일에 어린이날을 기념한다. 이 날은 네루가 좋아했던 꽃 장미를 서로 나누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보이즈홈에서는 라이온클럽의 기부자들이 와서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 춤, 연극 공연을 보고, 아이들에게 새 학용품과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우리는 아이의 부탁을 받고, 이 날 행사에 선보일 공연을 약 2주간 하루 한 시간씩 함께 연습했다. 이미 End Poverty Campaign을 하며 익숙한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라 쉽게 생각했지만, 완벽을 강조하는 아이, 바바의 요구 탓에 몇몇 블랙홀들을 데리고 애를 먹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아나나 다를까 긴장한 우리 꼬맹이들은 평소 실력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 해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아무려면 어쩐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됐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서로를 토닥였다. 라온아띠 입장에서는 세부뿌리 등 구자라트 지방의 간식도 맛보고, 아이들과 행복한 웃음을 나눌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5. 11월의 행사

디왈리 파티

디왈리는 인도의 가장 큰 명절로, 상점은 한 해의 영업이익을 정산하고 학교는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등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로 여겨진다. 빛과 색의 축제라고 불릴 만큼 거리엔 화려한 전등이 밝혀지고, 집집마다 길운을 부르는 디야를 밝히며, 아낙들은 랑골리라고 불리는 색료로 바닥에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 사람들은 달콤한 간식을 만들어 나누고, 이 기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민족대이동이 펼쳐진다.

계절의 흐름 상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따로 없는 인도에서는 디왈리 기간에 약 20일 정도 긴 방학을 가진다.(물론 축제의 나라 인도에서는 한 달에도 여러번 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이 있어, 실제 수업 일수는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이즈홈에서는 이 기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부모님에게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아이들에게는 졸업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11월의 행사

다양한 파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인 10일, 마지막 행사로 디왈리 파티에 참가했다. 기부 문화가 보편화된 인도에서 한 기부자가 이 행사에만 1억원 이상을 기부하여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한다. YMCA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아이들이 모여 밴드 공연을 즐기고, 자신들의 장기를 뽑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보이즈홈의 재간동이 브라이언도 무대에 나가 춤을 춰서 상품을 타는 쾌거를 이뤘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양손 가득 선물(연필부터 시계, 가방, 공책, 담요까지)을 들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5. 11월의 행사

크리스 & 미니 결혼식


지난 11일 YMCA*YWCA 커플인 크리스와 미니의 결혼식이 있었다. 결혼식에 가기 앞서 아띠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옷은 어떻게 차려입어야 하는지, 축의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선물을 사야하는지 등등 고민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다. 다행히 알렌과 아이의 조언을 얻어 Arpita는 사리를, Naina를 꾸르따를 한 벌 맞춰서 입고, 식기세트와 화환을 사서 식당에 향했다.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인도인의 결혼식에 가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했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이니 만큼 정말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상상했던 전통 의복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성대한 식은 보통 힌두식 웨딩이고, 크리스찬인 두 사람의 결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 11월의 행사

크리스미스 & 미니 결혼식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막상 찾아간 결혼식은 역시 인도!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놀라웠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행진하는 웨딩마치에,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 다함께 축배를 드는 시간, 하객들이 자유롭게 나와 춤을 추는 댄스타임까지. 밤이 깊도록 함께 즐기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댄스타임에 나오는 노래는 볼리우드 댄스부터 셔플, 강남스타일 까지 정말 다양했고, 아띠들이 제일 신이 나서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5인 5색

Essay



*Lorem ipsum dolor
sit. Pellentesque
hendrerit et est. Ma
nente utinam sed
dui nulla dictum. eu
Maxima hendrerit en
adipiscing. Sed pellentesque
Nullam uti aisi, necenatis ut amet feugiat est.
pellentesque in dui. Maqui curvix volutatem aisi.
Festibulum laurus semper sapiat at maleuando.
Nasellus id aliquam aino. Ut interdum aisi
vitas dai tempus elementum. Nulla facilis. Pura
volutatem aliquam portitor. Purrorit curvix
vitas aisi volutatem semper. Maqui labo
volutatem aisi. Sed ut aisi
vitas aisi. Maqui do*



11월 에세이-Arpita(선영)

우리 지금 가운데

벌써 뭘바이 생활도 세달, 우리의 활동 기간 5개월로 보자면 벌써 중간 지점을 넘었다. 우리의 활동도 이제 쪽쪽 나아가던 방향을 틀어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제 막 시작한 일들을 생각하면 참 아쉬울 수밖에 없다.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고, 조금 더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하고 싶은 나로서는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기초를 다진 뒤 떠나야하는 내 위치가 가끔 너무 속상해진다.

첫 기수라는 이점 덕분에 그간 활동은 차근차근 우리가 만들어가는 활동이었다. 낯선 도시에서 우리는 차분히 관찰했고, 조심스레 제안했고, 여러 친구들과 기관들의 협력 속에 나름 값진 성과들을 이뤄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다. 뭘바이 Y는 언제나 열려있었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주었다. 그래서였는지 너무나도 다른 각각의 다섯 명이 수없이 피대며 살아온 3개월이었던 것 같다. 다행히도 서로 가진 능력과 성향들을 가지고 좋은 균형을 만들어가는 팀이었기에 기관과 돈독한 신뢰를 쌓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어찌 생각해보면 그런 좋은 성과들이 우리 팀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던 면도 있다. 처음에 인도팀은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던 팀이었는데, 그 와중에 많이 지치고 힘들다보니 어느새 형식적인 회의가 잦아졌다. 그러던 와중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전공이 문헌정보학인 탓에 프로젝트를 이끄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나는 나 나름대로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이었는데, 프로젝트의 내용이 팀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었다.

끝을 알 수 없는 회의가 순식간에 몰려왔다. 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만족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안에서 나의 독선이나, 아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거나 불편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참 참담해진다. 나에게서는 지난 1주 정도가 그렇게 힘 빠지는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고쳐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 라온아띠로 나가있는 30명의 모든 단원들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원만하고 사교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팀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라온아띠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다,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굳어진 20년의 습관을 고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옳은 것 그른 것을 가리다 보면 결국 나만 옳고 타인은 그르게 된다. 그래서 나는 팀원들을 이해한다는 표현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냥 서로일 뿐이고, 각자일 뿐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배려이고, 긴장이고, 노력의 연속인 것이다. 이제 나는 우리가 싸우지 않길 바라는 것을 포기했다. 다만 조금 덜 싸우는 팀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뿐.

지난 11월에는 두 번의 캠프가 있었다. 뜨거운 별 아래 아이들과 치대며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여유는 분명했던 시간들이었다. 항상 바쁘게 달려오기만 했던 우리 팀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의미나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남은 활동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도 각자 구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믿는다. 다시 시작되는 12월에는 조금 더 나를 느슨하게 잡아보려고 한다. 너의 이런 점이 맘에 안들어! 라는 팀원들의 불멘소리에도 좀 더 유해져 보련다. 우리는 아무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도에 대한 두서없는 생각과 느낀점

미인의 나라 인도. 인도에 오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인구도 많고 그만큼 미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인도 여자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도에 와서 더 놀랐던 것은, 인도에는 미남도 참 많다는 것이다. 미녀가 많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미남도 이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다. 길을 지나가면 신기해서 쳐다보는 모습이 재밌다. 까만 피부 탓에 흰 눈자가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뭄바이라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남녀의 성비 차가 확연하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보아도 남자가 훨씬 많게 느껴진다. 남녀의 성비가 6:4에서 7:3정도 되는 것 같다. 아직도 인도 사회에는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길을 지나가면서 힌디로 써 있는 간판을 마음 속으로 읽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은 기초적인 힌디를 스스로 테스트 해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명사와 동사에도 성비가 구분되어 있는 외국어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힌디 또한 배우는 것에 있어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기 마련이다. 과거 남녀 차별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분이 없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내 입장에서는 굳이 왜 언어에서까지 성별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편함이 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기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는다. 보통 저녁시간이 8시부터 10시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점심 시간 이후로 허기질 때마다 티타임을 기다리곤 한다. 차를 달이는 사람이 다르듯 차의 맛도 조금씩 다르다. 물론 기관의 요리사 Mr. Donald가 해주시는 티가 가장 맛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오후 4시. 아이들이 더 먹으라고 나눠주는 과자와 함께 티를 마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기관의 요리사 Donald에 대해 얘기를 더 하자면, 이 분의 음식 때문에 나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거의 없다. 인도 음식이 워낙 맵거나 달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이고, 우리 입맛에도 맞는 음식들이 많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sweet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 축제 기간마다 먹는 sweet의 종류도 나누어져 있다. Sweet가 정말 달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맛에 길들여져 있었고, 무턱대고 맛있다고 먹었다가 살이 찌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슬픈 상황에 있기도 하다.

인도 사람들은 참 재밌고, '여기도 역시나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인도 와서 가장 많이 한 것 같다. 마인드 자체가 참 느긋하고, 여유를 즐길 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속 시간 내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 어떤 일에 대해 바로 직전에 통보하는 일이 다반사며,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 10분은 곧 30분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 화가 나다가도 웃음이 나기도 한다. '인도니까.....' 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내 자신이 가끔은 너무 웃기다.

11월 에세이-Naina(성수)

‘사람을 향한다’는 것

11월 한 달은 내게 있어서 관계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했던 달이다.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곳에서의 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새로움은 지워져 갔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목적의식도 이런저런 일에 치여 조금씩 흐려져 갔다.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활동들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을 팀원들과의 관계였다. 그동안 더 큰 것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 왔던, 사소하지만 굵지 않고서는 가려워 견딜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씩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와 돌아보면 이런 불편함에 대해 내가 처음 취했던 방식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왜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른지에 대한 이유들을 조목조목 찾아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불편함은 더욱 커져만 갔고, 남은 것이라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온 혹은 해나갈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였다. 어느 순간 팀을 돌아봤을 때, 처음 인도팀의 강점이었던 그 생기발랄함, 지치지 않는 열정이 가득했던 논의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어떤 일을 하던 ‘사람’과 함께 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범주 안에 나는 우리 팀원들은 빼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되돌아본다. 이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빈곤이라는 큰 굴레 안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낮아지고자 노력하면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상처받을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귀 기울였을까. 어떤 일에도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도팀도 어떤 곡선의 한 부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사히, 서로 너무 많이는 다치지 않도록 보듬으며 지금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지친 누군가가 가끔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내 옆의 동료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내가 읽는 ‘사람을 향한다’이다.

덧) 11월 한 달간 내게 힘을 준 노래를 나누고 싶다! :D

나는 누군가의 가슴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까지 살다가
내겐 작은 꿈이 있어 그대 여린 가슴에 들어가
그대 지치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려해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대 행복할 때
때론 그 사랑이 너무 아파 눈물질 때
때론 지난 세월이 그리워 그대 한숨 질 때
그렇게 나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려네

한때 나와 나의 동료들은 거친 세상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의
분노가 되고 희망이 되어 거리에서 온 땅으로 그들과 함께 했지
그때 그대들과 난 아름다웠어 비록 미친 세월에 묻혀 사라진다 해도
다시 한 번 그대 가슴을 펴고 불러준다면 끝까지 함께 할테요

노래의 꿈, 꽃다지

11월 에세이-Sameer(병찬)

[개인 고찰1 - 이 에세이가 보고서의 형식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읽힘을 당한다니 참 부끄럽다]

인도의 친구를 말하기에 앞서 봄바이의 겨울은 따뜻하다. 봄바이의 아침저녁은 한국의 초가을처럼 선선하다. 한낮부터는 햇볕이 무섭게 내려쬐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보며 생각해 보았다. 인도의 친구보다 시급한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수수방관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자 한다. 그 동안 봄바이에 있으며 관찰하지 못했던 것,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려 했던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느껴졌다. 어쩌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인도에 대해, 봄바이에 대해, 보이즈홈에 대해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에세이에선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표현했다. 자신 있게 무언가를 말하기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한국 사무국의 중간평가 이후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쩌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부분 안에 진짜 인도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인도에 대해 말하고 싶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인도, 알리고 싶은 인도. 과연 나에게 어떤 나라인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인도는 결코 따뜻하지 않다. 냉정하게 덧붙여 말하면, 인도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다.(개인적인 견해로 비춰볼 때) 우선 라온아띠로서 인도를 방문한 이유가 가장 크겠다. 만약 단순한 관광 목적의 외국인으로 혹은 여행자로 인도를 방문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따뜻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만큼 라온아띠의 사업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반면에 라온아띠로서 지닌 한계성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인도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안전상의 이유로 좋은 모습(인도의 문화와 축제

등), 아름다운 장소(역사적인 관광지 혹은 발달된 상업지구) 등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놓치고 있던 부분, 확연하게 드러나는 빈부격차의 중심지 봄바이에서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장소의 이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족 단위로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길 위에서 헐벗고 속식을 해결하며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애써 태연하고 당연시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불편해졌다. 그래서 반성하려 한다. 누군가는 그들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외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기이다. 안전과 언어 소통 등 다양한 이유가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어쩌면 접근의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 같다. 인도인들조차 외면하려는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최소한 그들에 대해 외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라온아띠가 던져주는 목적의식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 주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모아 변화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라온아띠 아닐까 싶다. 그 동안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반문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안전한 구조 안에서(새장 속에 갇힌 새) 좁은 시야로 인도에 대해 말하고, 봄바이를 설명 했었다. 라온아띠로 있으며 호의호식하기 위해 온 것이라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중간평가 받으며 깨달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함과 내가 지닌 불편함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불편함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까 한다. 비록 많은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문제의식을 지닌 라온아띠가 되어 돌아가고 싶다.

[섬표,]

어느덧 인도에 온지도 3개월이 지나간다. 3개월 동안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11월 에세이를 써볼까 한다. 물론 인도로 오기 전, 내가 생각하는 라온아띠로써의 모습과 정체성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다. 하지만 현지 활동들을 하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남은 2개월간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족한 글을 적어본다.

[자극]

누구나 꼭! 해야 할 ‘고민’들과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지식’들에 대해 너무나 뒤늦게 접해버린 것 같다. 그 중에는 알고 있음에도 문제의식 없이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던 것들도 있어 너무 부끄럽다. ‘신자유주의’, ‘평등’, ‘평화’, ‘가난’, ‘체식’, ‘연대’ 등 라온아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던 것들이 대다수이다. 이제라도 고민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감사 한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스스로 고민 없이 살았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 때로는 이러한 고민들과 반성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답으로 가기도 하지만 저런 바보스러운 답을 낼 때마다 다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나보다 앞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관계]

나는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려고 한다. 여전히 관계에 대한 나의 관념은 변하지 않았다. 이전의 나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관심을 주고, 먼저 나에게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내 생각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걸 보여주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유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있다.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쉬지 않은 것이다. 중간평가단이 방문했을 때에 함께 갔던 'saarthak'에서 보았던 문구가 관계의 대한 개인적인 행동지표가 될 것 같다.

Don't promise

When you are happy

Don't reply

When you are angry

Don't decide

When you are sad

7. 12월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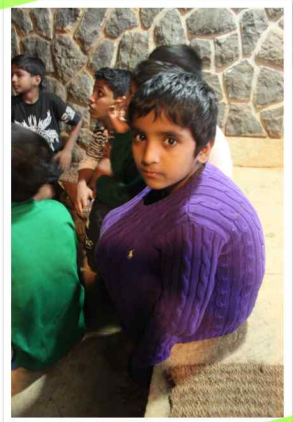
● 고아비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라온아띠 8기 인도팀의 휴가! 인도의 지상낙원이라는 고아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휴가를 보냈을까? 과연 상상대로 매일이 씨푸드의 향연? 해변에서의 낭만을 만끽했을까? 궁금하다면 8기 인도팀의 마지막 보고서, 12월 웹진을 보시라!

● 대선투표

단 한 표도 놓칠 수 없어! 낮은 청년투표율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되는 이 시대에 라온아띠 8기 인도팀은 이억만리 타지에서도 대선에 참여한다! 뭍바이 영사관에서 던진 소중한 다섯 표의 이야기. 12월 웹진에서 확인하세요!

Bonus Page



Bonus Page



Bonus Page



Bonus Page



Bonus Page

